

눈·입 즐거운 고창 축제속으로



북분자·수박·장어 테마로 축제
고창군, 21~23일 3일간 개최
공연·물싸움 등 프로그램 다양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을 7개나 보유하고 있는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북분자와 수박, 장어를 테마로 한 '제21회 고창북분자와 수박축제'가 열린다.

고창군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축제가 열리는 선운산도립공원은 곳곳에 기암괴석이 웅장한 풍경을 그려내고 경관이 빼어난 울창한 숲속에 천년 고찰 선운사가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DJ와 함께하는 더위(The War) 물총 싸움과 어린이 풀장 운영, 선운산도립공원 축제장 일원에서 관광객과 한바탕 물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서로에게 물총을 쏘며, 무더위를 날려버린다.

개막식 축하공연으로 '나혼자산다'에 출연한 박지현과 천태만상 윤수현의 축하공연도 예정돼 있다.

고창출신 가수 김현의 식전공연, 전북도의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정춘버스킹, K-POP 랜턴플레이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고창 농·특산품 판매장에서는 해풍을 맞고 황토에서 자라 맛과 향이 우수한 고창의 맛좋은 북분자와 수박을 구매할 수 있다. 올해는 관광객이 북분자와 수박을 구입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주차장에 판매장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창수박의 지리적표시제 조건부 심사합격 통보를 받아 수박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됐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명품 수박을 생산하고 유통과정에서 등록 인증마크를 상품에 표시해 원산지 증명과 고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윈윈 할 수 있게 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성류 다가온 여름 더위 앞에 고창의 북분자, 수박으로 건강을 챙기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도 둘러보며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관계자들이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거시설에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39가구 500만원씩 지원

남원시가 지역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한다.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수혜를 제공해 소득 계층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노후·불량주택으로 보수가 시급한 주택부터 실시

한다. 또 최근 3년 이내 집수리사업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시는 올해 사업 예산으로 1억 9500만원을 확보, 39가구를 지원한다. 가구당 500만원 범위에서 지붕·벽체의 구조보강,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전기·가스시설 등 주거 안정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 및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조선왕조실록 수호자...안의·손흥록 선생 기리는 '이안행사'

정읍시, 22일 기념행사 개최
이안 행렬 체험 참가자 모집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선비들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정읍 내장산에서 개최된다.

정읍시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정읍의 역사적 인물인 안의(安義)와 손흥록(孫弘祿)의 회생과 현신을 기리기 위해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내장산 우화정 앞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역대 왕조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실록은 춘추관, 충주·전주·성주사고 총 4곳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며 전주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는 병화로 소실됐다.

이에 안의와 손흥록은 전주사고의 실록과 태조 어진을 지키기 위해 전주 경기전에서 정읍의 내장산 용굴암으로 이안했고, 보존터에서의 일상을 일 년여 간 기록해 수직상체일기를 남겼다.

두 선비의 현신으로 무사히 지켜진 실록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고, 실록 보존터(용굴암, 은적암, 비래암)는 2015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두 선비의 현신을 높이 평가해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과 어진을 정읍 내장



지난해 열렸던 '이안행사' 모습. (정읍시 제공)

산으로 옮긴 6월 22일(당시 기준 음력)을 문화재 지킴이의 날로 지정했다.

이번 행사는 안의와 손흥록 두 선비가 실록과 어진을 내장산 용굴까지 옮긴 역사적인 순간을 재현하는 행사로 내장산 일주문부터 용굴암까지 전통 의상(평민복)을 입고 행렬을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안 행렬 체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역사의 한 장면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접할 수 있다.

정읍문화원은 2020년부터 조선왕조실록 이안

길 걷기 행사를 추진해 왔고 2020-2021년 전주 경기전에서 내장산 용굴암까지 약 66km를 걸으며 1박2일 간 이안 체험을 진행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정읍 향토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정읍문화원과 함께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향토사를 발굴해 역사·문화적 가치를 드높이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태권유랑단 녹두' 공연

29일 정읍시예술회관

정읍시가 오는 29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해 태권소리극 '태권유랑단 녹두'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의 일환으로 올해는 정읍시가 공모에 선정돼 전북자치도의 특화 브랜드 공연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태권유랑단 녹두는 녹두장군 전봉준이 이끌었던 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인물들의 진실과 꿈의 의미를 그린 역사 판타지극이다.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선수들과 퓨전국악실내악단 '소리' 등 지역 예술단체들이 참여해 전북자치도만의 특성화된 브랜드 공연으로 제작됐다.

또 공연 중 태권도의 절도 있는 품새와 겨루기, 고난도 격파, 칼군무에 국악 등의 신명을 더했다. 공연 관람은 시작 30분 전부터 선착순 무료입장이며, 공연은 오후 3시, 7시, 총 2회 70분씩 진행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국악과 함께 태권도의 고난도 격파 등으로 치열한 전투를 표현하고, 동학의 불을 천개의 촛불로 연출해 관객과 함께 호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료

성송면 8개 마을 228가구 혜택

고창에서 국비 102억원 등 총 145억원이 투입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완료돼 깨끗한 하수처리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수백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준공된 대산 하수관로는 성송면 무송리, 산수리, 하교리 일원의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사업으로, 8개 마을 신규 하수관

로 14.8km가 매설됐고 228가구에 배수설비가 설치됐다.

그동안 주민들은 생활하수가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면서 여름철 악취와 해충으로 불편이 컸고 눈·발에도 악영향을 끼쳐 영농에까지 큰 지장을 받아 왔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이 차단됐고 농촌미관 개선은 물론 주민들 보건·위생환경 역시 개선됐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